

2023년 8월 27일(가해)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녹) 연중 제 21 주일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 안드레아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온라인(Zoom)
 (문의 : 김우경 가브리엘라)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교황님 기도지향 - 8월]



복음화 지향 : 세계 청년 대회

리스본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 대회가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증언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1주일입니다.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혜의 샘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베드로 사도의 겸손한 증언으로 우리 믿음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모든 이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시어, 나자렛 예수님을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알아 뵙고 살아 있는 돌이 되어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22,19-23

<나는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메어 주리라.>

화답송 시편 138(137),1과 2ㄴ.2ㄱㄴ과 3.6과 8ㄴㄷ (◎ 8ㄴㄷ 참조)

◎ 주님, 당신 자애 영원하시니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1,33-36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복음 환호송 마태 16,18 참조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13-20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영성체송 시편 104(103),13-15 참조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영성체 후 묵상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베드로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다집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 오늘의 복음 묵상 - 정용진 요셉 신부 ♣

그리스도시라는 우리의 고백이란?

헤로데 임금은 죽기 전 아끼는 아들 필리포스에게 자기 왕국의 북쪽 영토를 줍니다. 바산, 곧 지금의 골란고원과 그 너머 북쪽의 영토입니다. 비옥한 땅과 단에서 흘러나오는 깨끗한 물에, 가축을 위한 목초지도 풍부하여 번영의 조건을 고루 갖춘 곳이었습니다. 필리포스는 그 땅에 수도를 정하고, 이름을 "카이사리아"(카이사르의 도시)라고 짓습니다. 그가 충성하는 로마 황제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포스는 샘물이 솟아나는 자리 위에 판테온(만신전)을 짓고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너희에게 나는 누구인가?' 아마도 제자들 앞에는 그들의 눈을 사로잡는 무엇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연의 선물인 비옥한 땅과 샘솟는 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려한 궁전과 신전들의 위세였을 것입니다. 이 광경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의 요지는 결국 이렇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많은 신과 왕과 나 사이에서 너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필리포스가 지은 판테온에는 사람들에게 유독 사랑받던 두 신, 곧 목축의 신 '판'과 정령의 신 '님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주겠노라 약속한 신들입니다. 거기에다 그들에게 충성하는 필리포스의 친구들은 임금이 주는 부와 풍요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유혹입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것과 차별되는 어떤 것을 제자들에게 주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날날이 밝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른 성경 구절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적잖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우리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나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 연중 제 21 주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성 베드로의 열쇠', 생 프리외르의 장인 작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마태 16,19).

.....
.....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2023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9월 1일) 교황 담화문 - 주제 '정의와 평화를 흐르게 하여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정의와 평화를 흐르게 하여라."**는 올해 교회가 일치적으로 지내는 창조 시기의 주제로, 성구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아모 5,24)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의 이 의미심장한 표상은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우리에게 일러 주고, 하느님께서서는 정의가 다스리기를 원하시며 정의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닌 자녀로서의 우리 삶에 필수적인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의로워지고자 또 하느님의 법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생명을 꽃 피우고자 노력하기를 바라심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인류, 자연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을 때에'(마태 6,33 참조) 정의와 평화는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살찌우면서 결코 마르지 않는 맑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캐나다 순례 중의 성찰을 나누시며 우리가 인간으로 성장하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피조물의 리듬과 우리 생명의 리듬이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시면서, 올해 창조 시기에는 우리 자신의 심장 박동,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의 심장 박동, 피조물의 심장 박동, 하느님의 심장 박동에 머물러 봄을 권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심장 박동들은 조화롭게 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환경과 기후 불의에 희생당한 이들 편에 서라는 부르심, 피조물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전쟁을 종식하라는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며, 다음의 세 가지를 권하셨습니다.

△ **우리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위대한 강에 합류합시다. "생태적 회개", 곧 피조물을 더 이상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창조주께 받은 거룩한 선물로 소중히 여기기 위하여 피조물과 이루는 관계를 새로 해봅시다.

△ **생활양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위대한 강이 흘러가는데 이바지합시다. 생태적 죄를 회개하고,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기쁜 마음으로 쓰레기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적절한 자원 사용의 생활양식을 채택합시다.

△ 우리 사회를 다스리며 현재와 미래 젊은이들의 삶을 구성하는 **공공정책을 변화**시킵시다. 과학에 귀를 기울여 화석 연료 시대를 종말 짓는 빠르고 공정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에 맞게 행동합시다.

[담화문 전문] <https://url.kr/ne1a49>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담화문] <https://tinyurl.com/26azj4hz>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안내

9월 24일(주일)에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이날은 미사 30분 전부터 위령을 위한 연도를 바칩니다.

[합동 위령미사와 미사 전 연도 중 기억하고 싶은 연령 신청 안내]

성전 입구 안내테이블에 비치된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봉투를 사용해 다음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이름과 세례명, 기억하고 싶은 연령의 이름(과 세례명)을 기재 후 교무금함에 9월 3일 ~ 17일 사이 제출

[미사 후 음식 나눔] 사목회에서 준비한 음식과 신자분들께서 한 접시씩 준비해 오시는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2023년 아버지의 날 공동체 행사 안내

[일시] 2023년 9월 9일(토), 오후 12시부터 식사 및 친교
※ 성당에서 밥, 바비큐용 고기, 김치, 음료 제공 (주류는 BYO)

[장소] Casuarina Sands (안내링크: <https://url.kr/s2cx1j>)

※ (이동수단) 자차로 개별 이동 또는 카풀 사용
- 카풀 사용시 성당에서 오전 11시 30분 출발

[대상] 성인 남성 교우와 초대하고 싶은 쉬는교우 또는 비신자 성인 남성

[참가신청 및 문의] 9월 3일(주일)까지 신청, 허준 안토니오

Father's Day Appeal 모금 안내

Father's Day(9월 3일(주일)) 은퇴 사제들을 위한 모금을 진행합니다. 모금액은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은퇴한 사제들을 돌보고 있는 은퇴 사제 재단에 전해집니다. 은퇴 사제들을 위한 기금 마련에 교우분들의 정성스런 참여를 바랍니다.

9월 3일(주일)에 Father's Day 특별헌금 봉투를 사용해 봉헌함 또는 교무금함에 봉헌해 주세요.

콜카타의 데레사(마더 데레사) 성인 축일 기념미사

[일시 및 장소] 9월 2일(토) 오전 10시, St Raphael's Church (47 Lowe Street, Queanbeyan NSW 2620)

[마더 데레사 성인에 관한 글] https://m.catholictimes.org/mobile/article_view.php?aid=274738

캔버라 한인성당 이스라엘·요르단 성지순례 참가자 모집 및 예비신자 교리반 [접수 및 문의] 주정자 루치아



| 연중 제 21 주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⑧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로 고통받는
못 생명들을 기억하며 쓰레기 만들지 않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생활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⑩

운전할 때 경제속도(50-80Km/h) 20% 준수하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우리 공동체에서는 공동의 집인 지구와 환경생태 보호를 위해 일회용 제품 사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음식나눔, 다과 등의 행사시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안소근 실비아 수녀의 구약 종주
16 강 이사야서 I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아시리아가 세력을 확장하던 시기,
이사야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했을까요?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49 강]
압살롬의 반란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다윗이야기 | 사무엘기 8 부 I
2 사무 16-24

cpbcTV 가톨릭콘텐츠의모든것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문창우 비오 주교님이 말하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란?

□ 미사 참례자수

8 월 13 일	성인 50 아이 16	8 월 20 일	성인 53 아이 32
----------	-------------	----------	-------------

□ 우리들의 정성 (8 월 19 일(토)~25 일(금))

구민식	남궁영근	손재호	양홍석	윤현태	이지영	장호훈	전인철
조성희	주정자	교무금 \$420 (10 가정) / 봉헌금 \$360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062786 / Account Number: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김우경 가브리엘라 - 전례분과)

	8 월 27 일 연중 제 21 주일	9 월 3 일 연중 제 22 주일
독서	주정자 루치아, 이명진 이사악	이상명 다니엘, 주정자 루치아
예물봉헌	마태오반	요한반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27 일) 마태오반 → (9 월 3 일) 요한반 → (10 일) 루카반 → (17 일) 마태오반

○ 미사 후 친교 (매월 첫째주 식사-청년들을 위한 김치나눔, 셋째주 간식): (9 월 3 일-식사, 17 일-간식) 요한반

□ 미사성가 안내 (가사/악보 보기, 듣기, 다운로드 - 링크 클릭)

	입 당	예 물	영 성 체	파 견
8 월 27 일	34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	215 영원하신 성부	151 주여 임하소서	480 믿음으로
9 월 3 일	61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221 받아주소서	161 성체를 찬송하세	285 103 위 순교 성인

♡ 이번 주일 미사를 집접해 주신 손상복 요한 보스코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